

화려한 듯 알찬 남도해안 고택의 매력

시골마을 오래된 건축 뜯어보기

정종남 지음

글짓기와 집짓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짓다'라는 동사를 쓴다는 사실이다. 사전적 의미의 '짓다'는 '재료를 들여만들다'라는 뜻이다. 한편으로 '사람이 글이나 노래를 쓰거나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다. '글을 쓴다'라고 않고, '글을 짓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포괄한다. 집을 짓는 것처럼 글을 짓는 것 또한 구조와 맥락, 글을 쓰는 이의 품격 등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설계와 재료, 주제 등이 글을 쓰는 것이나 집을 짓는 것이나 동일한 관점으로 수렴된다.



장흥 죽헌고택은 안채, 사랑채 등 다섯 채 건물이 원형대로 잘 보존돼 있다. 사진은 사랑채. <베네치아 북스 제공>

책에 소개된 곳은 장흥 죽헌고택, 보성 강골마을 열화정, 나주 향교와 객사,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 강진 백운동 원림 등 한번쯤 들어봤을 곳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시골마을에서 느긋하게 한국건축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리게 된다.

보성 봉강리 정 씨 고택은 조선 후기 양반집 구조다.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고 경관도 아름답다. 지금의 정 씨 고택 배치는 1800년대 후반에 갖춰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당대 등장한 지방 부호들의 화려한 치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한다.

정원이 아름다운 장흥 죽헌고택은 2021년 '한국 민가 정원'으로 지정됐다. 집주인 선조인 죽헌 위계장(1861~1943)의 호에서 따왔다. 고택에는 안채, 사랑채, 곳간, 대문, 사당까지 다섯 채 건물이 있는데 원형대로 잘 보존돼 있다. 옛 농촌 생활상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안방 문을 열고 앉으면 마을 앞 들만이 내려다보이

고, 멀리 천관산 정상 기암괴석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다. 저자는 특히 "안채 문을 위 기둥 옆에 끼운 조각 장식 판재는 굴뚝 꼭대기 학 장식만큼이나 감탄스럽다"고 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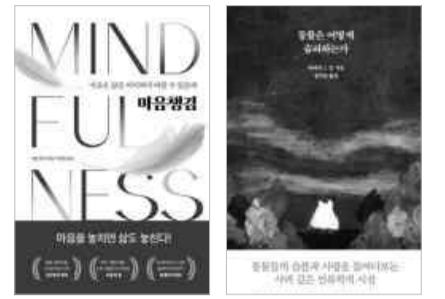
'조선 국립 지방학교'인 나주 향교는 전국 향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조선 중기 건축양식으로 대다수 향교가 교육공간이 앞에 있고 제례 공간이 뒤에 있는 전학후묘인데 나주 향교는 그 반대인 전묘후학이다.

'조선시대 호텔'인 나주 객사(금성관)는 규모와 건축양식이 화려하다. 가운데 건물 금성관 정청은 당대 객사 중 제일 규모가 크다. 팔자지붕을 한데다 건물 앞의 월대도 격식 있게 구조화했다. 현재 건물은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거쳤고 1976년 원형에 맞게 복원했다.

<베네치아 북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마음챙김**=2015년 첫 발행한 '마음챙김'의 개정판.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어는 '명상은 마음챙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마음챙김이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몰랐던 경이로운 것들을 알아차리며 현재를 충실히 사는 심리적 원리'라고 밝힌다. 저자는 불확실성과 혼돈이 커져가는 시기, 마음챙김은 변화의 도구이자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퀘스트·1만6000원>
▲**동물은 어떻게 슬퍼 하는가**=동물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겪는 슬픔에 대해 이야기한다. 윌리엄메리대 대학 인류학과 명예교수인 저자 바버라 J. 킹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슬픔을 느끼지만 슬픔을 표현하고 이겨내는 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동물들이 겪는 슬픔이 인간의 슬픔보다 낫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서해문집·1만7000원>



▲**초등 그림책 인문학**=아이와 부모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등 24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이를 소개한 책. '행복한 청소년부', '나는 죽음이예요' 등의 그림책을 매개로,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죽음은 두려운 것일까 등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아이와 함께 탐색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하우스·1만6000원>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대한민국은 현재 팬데믹, 기후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 갈등 등 한 가운데 서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국제정치학자 김준형은 이렇듯 "외교에 진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세계 속 위상을 짚고,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외교혁명'이라는 수단으로 제시한다. <크레타·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개를 원합니다**=개를 기르고 싶은 밀리. 아빠처럼 힘이 세서 지켜줄 것 같은 커다란 개, 엄마를 닮은 털이 긴 개, 장난 치는 개, 아주 별난 개도 상관없다. 드디어 엄마와 함께 찾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만난 프린스는 말을 할 줄 아는 특별한 개였다. 벨기에 출신 작가 키티 그라우더는 프린스와 밀리의 진정한 우정, 반려인으로서 밀리의 성장을 보여준다. <논장·1만6000원>

모든 게 낯설고 작은 일에도 자꾸 실수만 한다. 반복되는 실수에 의기소침해질 만 한데, 둘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처음에는 다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잘 했어!" <천개의바람·1만3000원>

▲**나태평과 진지해**=진수경 작가가 쓰고 그린 엄마와 아들의 고군분투 사회생활 적응기. 입학한 지 한 달째인 초등학교 1학년 나태평, 입학한 지 한 달째인 워킹맘 진지해는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꿀벌과 지렁이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들려주는 환경과 그림책. 꿀벌과 지렁이의 몸의 구조, 성장과 번식, 사계절 동안의 일상을 한눈에 보여 줌으로써 자연 속에서 그들이 해내는 다양한 역할을 알려주며 꽃가루를 나르는 꿀벌과 땅을 비옥하게 하는 지렁이의 활약상도 담았다. <더숲·1만2000원>

김기창·나혜석·이중섭...근대미술 태동기 화가들을 만나다

경성의 화가들, 근대를 거닐다

황정수 지음

화가 천정자가 서울 서촌 누하동에 살던 때는 정신적으로 가장 여유롭고 낭만적 감성이 흐르던 시절이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갖는 등 마음의 안정을 찾아 자유로운 화풍을 구사할 수 있었다. 이때 그린 대표작으로 뱀을 형상화한 '사군도(蛇群圖)'(1969)는 그 화풍을 잘 보여준다.



창덕궁 왼쪽 담을 따라 원서동 길을 걷다보면 만나는 한옥 '춘곡의 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의 집이다. 직접 설계한 집에서 그는 32세부터 72세까지 40년을 살았고, 중요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일제 강점기 경성의 북촌과 서촌은 미술가들의 주요 거점이었다고, 이곳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남았다.

근대미술을 연구해온 황정수가 쓴 '경성의 화가들, 근대를 거닐다'는 유명 미술가들의 흥미로운 삶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 근대미술 태동기와 형성기의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북촌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저자는 산책길에서 고희동과 김은호가 살던 동네를 지나며 미술가들의 흔적을 접했고, 59쪽의 책을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서촌편', '북촌편'으로 구성돼 있다. 독자들은 '서울의 대모인 종각 이북'에 있다해 이름 붙은 '북촌'과 '경복궁의 서쪽이 들어서 있다'해서 이름 붙은 '서촌'을 거닐며 많은 예술가들을 만난다.

'북촌편'에서는 한국적 인상과 화법을 완성한 오지호,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화가 김기창, 한국 문인화의 정형을 정립한 장우성, 현대 건축의 산실 '공간' 사육을 설계한 김수근, 죽음으로 예술을 완성한 비운의 조각가 권진규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화가들도 흡수했던 슈퍼스타 최승희, 매란방을 비롯해 근대 서화골동

매매 거리의 원조 인사동, 근대미술의 요람 중앙고보와 휘문고보 등 미술의 현장도 소개한다.

'서촌편'에서 만나는 이중섭의 삶은 애뜻하다. 불행으로 접질린 그의 인생 중 서촌 누상동에서 지낸 1954년은 행복한 해였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고 제대로된 작업을 하던 그는 전시를 열어 성공하면 일본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작업을 이어갔다.

또 세상과 불화한 한국 최초의 여성화가였던 진명여고 졸업생 나혜석, 표지화에 능했던 팔방미인 정현웅, 언론인, 화가, 학자, 평론가였던 이여성과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군상'을 그린 이쾌대 형제, 만화가로도 이름을 떨친 동양화가 노수연, 깊은 우정을 나누는 두 천재 구봉웅과 이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또 인물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근대미술의 자존심이었던 서화협회, 현대화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준 인양산, 한글 서예의 산실이던 배화여자 고등학교 등도 소개한다. <푸른역사·북촌편 2만2000원, 서촌편 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